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기준 개선 연구	윤호선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김은희
수탁 과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은석
	현충시설 건립 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	손은신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방안	성은영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고구려·예맥 역사문화권)	심경미
	5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수시과제

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기준 개선 연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옥외광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광고물은 혁신적인 기술과 시각적 효과를 바탕으로 정적인 광고에서 벗어나 도시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관련 법령과 제도는 경직되어 디지털 광고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과 '자유 표시구역' 제도를 두고 있다.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중앙 정부가, '특정구역'은 광역시·도가 지정 주체가 된다. 즉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의 수요는 '특정구역'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특정구역'에서의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와 기대 효과를 파악하여 특정구역에서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정구역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옥외광고 시장의 최신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호선

①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부는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 건설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 부실시공 근절대책 등 다양한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대규모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학동사고(2021.6) 광주화정동사고(2022.1), 안성물류창고사고(2022.10)에 이어 2023년 인천검단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당해연도 12월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설계·시공, 감리 등 건축물 조성과정의 제도 개선 사항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중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자 지정방식 개선" 및 "감리 전문성 강화"를 세부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확대하고 감리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감리전문법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공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지만, 일부 건축물(건축주직영공사, 주거용건축물)에 한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며, 감리자의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확대하거나 적격심사 및 새로운 유형의 감리자(감리전문법인)를 도입하는 것은 건축주나 현행 감리자 입장에서 또 다른 규제로 비춰질 수 있고, 아울러 산업여건 및 가용 지자체 행정력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산업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공사감리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과 더불어 감리업무 범위 및 수행주체, 대가, 감리원 배치기준 등 선결해야 할 전제조건 등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감리시장 현황 및 실무자 대응력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부 정책대안 마련과

아울러 공사감리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희

②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정책의 건물부문을 총괄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여 녹색성장 실현을 견인하는 계획이다. 2023년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가 변함에 따라 미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제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전망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제1차,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정부 주도로 녹색건축 지원과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이행되었다. 국가적인 홍보를 통해 녹색건축 시장과 전문가가 양성되어 왔으나 지역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시장 형성 측면에서는 시간적·제도적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균형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개념 회복을 통해 정부 및 공공 주도에서 지자체 및 민간부문 주도로 이행주체를 이양하고 탄소중립·녹색건축 정책의 실현성을 강조하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 2029년까지 우리나라 녹색건축 정책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전차 계획에 따른 양호한 사업을 승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이번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및 민간 기반의 순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시장 부담 완화 등 중장기적인 실행계획과 단위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석

③ 현충시설 건립 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史跡地) 또는 일정한 구역(시설)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현충시설은 2,303개소에 이른다. 현재까지 현충시설 정책은 주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억·기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충시설을 조사하고 지정·관리하는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인물 위주의 비석과 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기억에 남는 현충시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기념관, 광장, 공원 등 대규모 현충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현충시설에서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시설이자 각 지역의 주요한 문화공간으로서 생활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자체가 직접 건립한 기념관 등 중·대규모의 현충시설이 과거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정책은 현충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지정' 중심의 체계이므로, 현재 국가 주도의 건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충시설은 일반적 시설물 및 건축물과 달리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시설이므로, 상징성을 고려한 건립·조성의 기본 원칙과 기준, 주요 고려사항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 원칙과 기준, 건립 단계별 주요 사항이 포함된 현충시설 건립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향후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으로서 현충시설의 관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은신

④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방안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주택 재건축 판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 고시되었다.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은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 혹은 제어장치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초기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기준 없이 건설된 주택들의 대부분은 재건축되었고 남아 있는 노후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구조상의 문제보다는 주거환경의 수준과 질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1990년 대 이후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은 건설 기준의 강화로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성 등은 확보되었으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 질(質)과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재건축 기준에 부합하고자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악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선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미래적 수요를 반영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판단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이 현재 상태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 가능한지 측면에서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항목과 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관련 제도 및 기준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 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진단 항목과 진단 방법을 간소화, 현실화하고자 한다.

성은영

5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고구려·예맥 역사문화권)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가 수립하는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고시되었다(2021.4.6.).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한 법정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과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시행계획'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간극을 메워주고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문화권의 종합적·체계적·협력적 접근을 위한 상위계획으로 문화권별(초광역)·광역별·기초지자체별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초광역 전략계획으로 고구려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다. 초광역 전략계획은 역사문화권별 주요 핵심권역을 밝히고 권역 간 연계와 관계·육성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지자체 간 정비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는 종합계획이다.

연구는 크게 유·무형 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범위와 핵심권역 설정, 역사문화권의 의미와 가치 정립, 권역별 발전 방향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무형 자원 목록화,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특성 분석, 일반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 분석, 지역 간 교류실태 및 연계잠재력 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고구려 및 예맥 역사문화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확산시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경미

6 5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역사문화자원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중에서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문화유산과 미래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 중 그 유형이 건조물 또는 역사유적을 이룬다. 기존의 '문화재' 중심의 정책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연구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함에 따라 정책대상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대하고, 훼손과 멸실을 막기 위하여 우선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호,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5년간 한국건축역사학회(조사 부문)와 건축공간연구원(관리, 활용방안 마련 부문)이 주축이 되어 실행하였으며 올해가 마지막 연구에 해당한다.

연구는 크게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으로 구성이 된다.

조사 부문은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축이 되어 전북문화재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5차년도에는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본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DB를 구축하고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관리 및 활용 부분은 건축공간연구원이 '향토유산 관련 지자체 조례 참고안'을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 보호·관리·활용의 실효적 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은 5차년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특성을 도출하고, 관련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여 권역별 역사문화자원 관리 및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치후

2024 제1~3회 보행공정포럼 개최



상 제1회 보행공정포럼
하 제2회 보행공정포럼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가 7월 15일(월), 8월 12일(월), 9월 9일(월)에 2024 제1, 2, 3회 보행공정포럼을 도원결의 서울역점과 인스 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보행안전정책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다양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행공정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세 번의 포럼 모두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중계도 함께 진행되었다.

제1회 보행공정포럼은 '노상주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노상주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김세교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팀장,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보행자를 위한 차량진출입로 처리방안 - 횡단보도보다는 보도로 이어주면 어떨까?'를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보행공정포럼에는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대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상 구로구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팀장,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남궁지희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차량진출입로와 관련된 보행공간의 문제점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회 보행공정포럼은 '통학로에서 통학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먼저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어린이가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윤윤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연구위원, 이재덕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연구교수, 맹기돈 검교실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처장, 남궁지희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이 참여해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AURI-HMCC 국제세미나 'Revitalizing and Developing Museum Space within Heritage Site'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2일(목) 후에 지방정부(Thua Thien Hue Province)의 직속기관인 후에유적보존센터(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re: HMCC)와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2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Revitalizing and Developing Museum Space within Heritage Site'를 주제로 각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물관 공간 및 단지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호앙 비엣 중(Hoang Viet Trung) HMCC 소장과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으며, 이영범 원장은 문화·역사를 반영하는 공공건축으로서 박물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사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는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진행한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연구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다낭박물관 소속의 후인 딘 꾸옥 띠엔(Huynh Dinh Quoc Thien)이 다낭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 및 전시 프로젝트에서 전시 콘텐츠 준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Complex of Hue Monuments)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행사의 일환으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를 직접 답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편 8월 23일(금)에는 향후 건축공간연구원과 HMCC의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영범 원장과 엄운진 부연구위원, 호앙 비엣 중 소장과 HMCC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였다.

news



2024 정원도시 정책 포럼 '국내 정원도시 정책 및 계획 현황과 발전 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산림청과 함께 8월 28일(수)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2024 정원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원도시 정책 및 계획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였으며,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박수미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 팀장이 '정원도시 서울 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남계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원관리팀 팀장의 '국민고향 정선군의 정원도시 정책과 계획' 발표까지 지역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김석문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과장이 '정원도시의 개념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 방향' 발표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박희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진흥실 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국내 정원도시의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4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6일(목) 원베일리 인바이트 지역문화센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건축법제 개선방향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소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선희 (주)에스비환경디자인 소장, 배선혜 부연구위원, 유제득 (사)한국건축가협회 연구부회장,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소장이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에 속하는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부문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별 부문은 올해 공모전에 신설된 항목으로 손그림,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양한 공모 형식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를 보다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 부문에는 초등학교(저학년부/고학년부)만 참여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효과성·표현력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모두 1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4회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영상물로 제작한 ‘우리 A 미래’와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한 ‘모두를 위한 건축, 이렇게!’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공모 내용 및 시상 계획

구분	시상	건수	포상	포상 종류
일반 부문	대상	1	상금 300만 원 및 상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1	상금 200만 원 및 상장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장려상	5	상금 50만 원 및 상장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상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상
특별 부문	대상	1	문화상품권 20만 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1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6	문화상품권 5만 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저학년, 고학년 각 3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운영 및 수료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8일(수)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청년이 인식하는 국토경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을 모집해 운영해 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경관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대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인식을 확인, 반영함으로써 지난 1, 2차 기본계획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토경관의 미래를 청년세대와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다.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은 청년이 생각하는 국토경관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 제안을 작성하는 등 해결책을 제안해 보는 활동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특히 3회차는 우수 정책 제안서 발표와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서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활동 프로그램

회차	장소	내용	비고
1회차 (8.16.금)	온라인 미팅	개회식 및 참여단 운영계획 안내 경관의 이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이해 '내가 생각하는 국토경관의 문제점' 발표	전체 강의 전체
2회차 (8.21.수)	서울도시 건축전시관	국토경관 문제에 대한 논의 확장 팀 토론 결과 발표 정책 제안서 초안 작성	팀 전체 개인
3회차 (8.28.수)	건축공간연구원	정책 제안서 팀 논의 및 멘토링* 정책 제안서 보완 정책 제안서 발표 및 전체 토론 수료식	팀 팀 전체 전체



* 국책 연구자(국책 연구원, 교수 등) 팀 멘토링 시행

2024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8일(수)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도시설계가 되어보기'를 개최하였다.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축안전, 건축설계 실습, 스마트+빌딩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왔으며, 2024년 첫 번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세종시 다정중학교 학생 20여 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건축공간연구원의 역할과 주요 연구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해 설명하였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조를 이루어 안전한 우리동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동네 도면에 직접 설계해보며 도시설계의 업무를 경험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 2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운영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4 2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건축생활'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북가좌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건축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 교육 콘텐츠 도입과 미래 건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건축물 등 미래기술과 건축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대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9월 9일(월) 건축공간연구원의 스마트+빌딩을 주제로 하는 '우리 학교 옥상은 UAM 정거장!', '아, 로봇! 우리 함께 살 수 있겠지?'를 시작으로 10월 21일(월)까지 총 12차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슬기로운 건축생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안)

늘봄 1반		늘봄 2반	
09.09.(월)	〈건축공간연구원〉	09.23.(월)	〈건축구조기술사회〉
13:00 ~	1~2차시:	13:00 ~	9~10차시:
14:20	스마트+빌딩	14:20	튼튼한 건축 구조
09.30.(월)	〈대한건축학회〉	10.07.(월)	〈대한건축학회〉
13:00 ~	3~4차시:	13:00 ~	5~6차시:
14:20	사람과 건축, 건축과 조형	14:20	자연과 방, 기후변화와 건축
10.14.(월)	〈대한건축사협회〉	10.21.(월)	〈건축공간연구원〉
13:00 ~	7~8차시:	13:00 ~	11~12차시:
14:20	나의 공간 만들기	14:20	지혜로운 전통 건축



건축공간연구원-성남시정연구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성남시정연구원은 7월 19일(금)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건축·도시 분야 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도시 경관, 주거문화,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 수행하고 도시 계획 및 설계, 공간계획 관련 연구 인력 교류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이슈, 주민수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대안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축·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강남구건축사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강남구건축사회는 건축문화 진흥과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9월 6일(금) 강남구건축사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공동 개최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품질 높은 공공건축 공급과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도시 속 공공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선진적인 건축문화를 이끌어가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